

브라질, 바이오디젤 생산기지 확장

볼리비아에도 공장건설 합의 ... 2010년 소비량 최대 27억리터 수준

브라질이 볼리비아에 바이오디젤 공장을 건설하기로 하는 등 생산기지를 점차 확장하고 있다.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 브라질 대통령은 2월15일 볼리비아산 천연가스의 브라질 수출가격 인상에 합의하는 대가로 볼리비아에 바이오디젤 공장을 건설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실라스 룬데아우 브라질 에너지부 장관은 볼리비아에 바이오디젤 공장을 건설하는 계획이 이미 진행되고 있으며, 브라질이 보유한 기술을 이용할 것이라고 말해 양국간에 협의가 곧 이루어질 것임을 시사했다.

바이오디젤 공장이 건설되면 중남미 지역 최빈국 중 하나인 볼리비아에 농촌지역 고용창출과 소득증대 등의 효과가 있으며 브라질 내수시장의 공급량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브라질 국영 에너지기업 Petrobras는 볼리비아의 바이오디젤 공장 건설 및 운영을 위해 5000만달러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브라질은 2007년 8월부터 기존 디젤연료에 바이오디젤 2%를 의무적으로 혼합사용하도록 할 방침이며, 2010년부터는 혼합비율을 5%로 높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바이오디젤 대량생산 체제를 갖추기 위해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실효성 있는 생산계획에 대해서는 전액 정부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브라질의 바이오디젤 소비량이 의무혼합 비율을 2%로 하면 10억리터, 5%로 높이면 27억리터 수준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2/16>